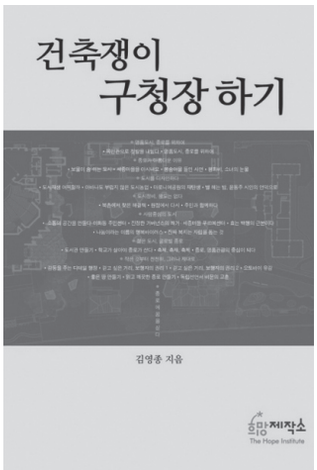
# 건축계소식

## 건축사 김영종 종로구청장 출판기념회 열어



김영종 구청장 책설명

강성익 회장 출사

건축사이자 현 종로구청장인 김영종 구청장이 쓴 책 '건축쟁이 구청장하기'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0월 17일 오후 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건축쟁이 구청장하기'는 김 구청장이 민선 5기의 반환점을 넘어 초심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발로 뛴 2년을 정리한 책이다.

이날 행사에는 약 천여 명의 내외 빈이 참석했으며,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영상 축하 동영상을 필두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정세균 국회의원, 승효상 건축사와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과 축하를 전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예술단체장 등 인사도 약 100여명이 넘게 참석해 김 구청장의 넓고 두터운 인맥을 보여줬다.

김 구청장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책 소개에서는 종로구를 사람중심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여졌다. 특히 김 구청장이 중점 추진했던 도서관 사업과 국내최초 민관거버넌스 사업인 종로종합장애인복지관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개관, 보행불편 개선사례 등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그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종로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21세기 잠재된 문화역량의 원천이기에 이런 종로의 문화를 되살리는데 진정으로 기여하는 문화기획자이자 문화구청장이 되는 것이 꿈이다."라며 "이 책에 담은 내용들이 더 나은 종로를 만드는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건축의 날' 및 '건축인걷기 한마당' 행사 개최

건축의 날 행사전경

걷기 한마당 행사 전경

한국건축단체연합(FIKA/대한건축사협회 · 대한건축학회 · 한국건축가협회)이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회장 서치호)가 주관한 '2012 건축의날' 기념식이 지난 10월 8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야외행사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건축3단체인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광만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등 건축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건축의 날은 원래 경복궁 창건일 9월 25일이지만 기념식은 매년 10월 초에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화학부 석좌교수의 특별강연으로 시작해 기념식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는 2007년 건축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건축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건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오늘같이 맑은 하늘처럼 건축의 미래를 위해 다짐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치사했다.

이날 영예의 훈장은 이문보 동국대학교 교수가 수훈했으며, 정부포상자는 43명으로, 건축사를 비롯한 대학교수와 건설회사 임원 등이 대통령표창과 국가건축정책위원장표창, 국토해양부장관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정부포상 후 참석한 내외 귀빈들은 전시회장으로 이동해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이날 전시된 건축 작품들은 각 지역의 우수 건축물들을 전시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여 수상한 건축사 중 대통령표창은 권연하(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앤씨), 국무총리표창은 김의중(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국가건축정책위원회장표창은 이운희(성광 건축사사무소), 정종태(쿠파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구창서(대건 종합건축사사무소), 국토해양부장관표창은 안택영(에이알 건축사사무소), 노경윤(토마 건축사사무소), 박대융(예가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춘(이동춘 건축사사무소), 전찬흥(아트피아 전찬흥 건축사사무소), 김성민(한섬 건축사사무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마춘영(세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김강수(연우 건축사사무소), 백민석(건축사사무소 더블유) 건축사가 수상했다.

공식적인 기념식이 끝난 후 이어진 리셉션에선 다양한 축하공연이 채워졌다.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건축의 날이 2005년 제정되어 벌써 8회째를 맞았다. 2007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이 신설 확대됐고, 이제는 훈장도 시상하는 등 국가의 지원이 차츰 확대되어 건축계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건축계의 미래를 밝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 건축문화 역량과 건축인들의 위상도 나날이 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건축계가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난 10월 6일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에는 2,500여명의 건축인이 모인 가운데 '2012 건축인 걷기 한마당'이 개최됐다.

건축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건축사 및 건축사 가족을 비롯한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건축과 대학생 그리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위원장과 건축3단체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임직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전 9시부터 문화광장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남산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총 6km의 산책로를 걸었다.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6km 코스를 완주한 가운데, 걷기대회 후 펼쳐진 '비보이 공연'을 관람하며 상품추천행사를 마지막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내년 대회를 기약했다.

## 2012 건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8회 건축의 날(10.8)'을 맞아 '건축인이 화합하고 건축이 대중에게 다가가기'의 일환으로 건축의 날 포스터를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하나의 큰 지붕아래 모여 화합과 단결, 더 나아가 창의적 건축문화창달과 공공성 확보를 추구한다"는 디자인 콘셉트의 이상윤(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씨의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우수상에는 최미진(가천대학교 건축학과) 씨와 이양석(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 2013 청암사진아카데미 디지털 건축사진 교육생 모집

청암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의)에서는 2013년 1월10일 부터 12주간 디지털 건축사진아카데미를 새롭게 개최한다.

이번 디지털 건축사진아카데미는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모든 작업방식을 디지털로 진행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촬영에서 프린트까지 100% 디지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는 2013년 1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12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0분간 이론 및 실습을 진행한다. 참가인원은 12명 내외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암사진연구소(chungam11@naver.com, 02-444-7088 혹은 02-517-3351)로 하면 된다.

[교육내용 및 일정] 제1주차 : 오리엔테이션, 코스 소개 및 강사진 소개 및 건축사진의 기본적인 이해와 흐름 / 제2주차 :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 및 종류와 특성 / 제3주차 : 카메라 렌즈의 종류와 활용법 그리고 촬영 노출 보정의 이해(실습) / 제4주차 : 개개인의 과제 발표 및 크리틱 / 제5주차 : 건축사진의 다양한 구도와 컨셉 그리고 빛과 노출 / 제6주차 : 디지털 카메라를 위한 포토샵 활용(실습) / 제7주차 : 중간평가와 카메라 사용에 대한 추가설명 / 제8주차 : 전통건축 바라보기 / 제9주차 : 현대건축 바라보기 / 제10주차 : 개인의 작품 평가와 포트폴리오 준비하기 / 제11주차 : 잉크젯 프린트의 활용과 포트폴리오 직접 만들기 / 제12주차 : 프리젠테이션과 총평

## '아이콘 파티 Vol.2' 개최

'아이콘 파티 Vol.2'가 '공유+(플러스)'라는 주제로 11월 6일(화) 오후 6시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인천건축재단), 2012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건축잡지 〈와이드AR〉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인천 및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와 교수를 포함한 디자인 · 미술 · 도시 제 분야 전문가 중 이슈메이커를 강연자로 초대하여 주제 토크와 더불어 일반 참석자와 함께 생각을 나누는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연자 1인당 20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지며, 전 강연자의 발표가 끝나면 사회자에 의한 공동 대화의 장으로 펼쳐진다.

아이콘 파티(ICON PARTY)는 인천의 건축 · 미술 · 디자인 · 도시의 잠재성과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연속 프로그램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인들과 타 장르 작가 및 일반인들과의 만남의 장은 물론 건축 · 미술 · 디자인 · 도시 관련 대학(원)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건축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축사들의 전문영역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인천건축재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인천의 도시 공간 환경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다. 강연자는 김태만 건축사(해안건축 디자인부문 사장), 박유진 건축사(시간건축 대표), 박진택(AA Dipl(hons) RIBA), 손정민 건축사(XECT건축 대표), 신호섭+신경미 신아키텍츠 공동대표, 오장연 GoodHaus 대표이다.

컨퍼런스 파티 공동 사회자는 권형표 건축사(바우건축 대표)와 전진삼 와이드AR 발행인이다. 문의는 070-7715-1960로 하면 된다.

### KCC '뽀로로 아동용 바닥재' 출시

KCC(대표 정몽익)가 바닥재 업계 최초로 '뽀롱뽀롱 뽀로로' 측과 손 잡고 뽀로로 캐릭터가 적용된 바닥재를 출시하며 아동용 친환경 바닥재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된 뽀로로 바닥재는 어린이 안전과 건강에 초점을 맞춘 아동용 전문 제품으로4.5mm의 경보행 바닥재이다. 또한 고탄력 쿠션층이 적용되어 보행감이 좋고 우수한 충격흡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특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 놀기 좋은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내년부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을 규제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에 따라 프탈레이트계를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가소제를 적용한 건강한 바닥재로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아도 무해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KCC 디자인부 허성훈 차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바닥재라는 모토로 이번 제품을 기획, 출시했으며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도 최고 인기 캐릭터인 '뽀롱뽀롱 뽀로로' 캐릭터를 패턴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어린이들이 집안에서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쿠션감을 강화시켰으며, 친환경 가소제를 적용하여 어린이 건강에 신경 쓴 친환경 바닥재이다."라고 말했다.

## 신간안내

### 가슴으로 쓴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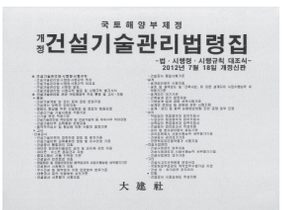
김종일 외 저 | 411쪽 | 맑은샘

신간 '가슴으로 쓴 편지'는 현재 경남에서 시원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인 필자가 개인 가족간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면서까지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간한 책이다.

책에는 딸이, 아들이, 아내가 필자에게 주고받은 편지가 애틋하게, 때론 서로에게 따끔한 충고, 가슴 뭉클한 격려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들, 딸과 혹은 아내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 방법을 찾는 건축사에게 동료의 경험담은 좋은 말벗과 같다.

### 개정 건설기술관리법령집

대건사 편집부 저 | 1006쪽 | 대건사




『건설기술관리법령집』은 2012년 7월 18일 개정신판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조식을 제공하는 건설 기술 관리 법령집이다.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살펴보고,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등을 제공한다.

### 궁궐, 조선을 말하다 : 궁궐로 읽는 조선의 제도와 이념

조재모 저 | 264쪽 | 아트북스

신간 '궁궐, 조선을 말하다'는 '공간과 행위의 관계'를 통해 궁궐을 읽는 작업을 지속해온 필자 조재모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가 '체제'의 관점에서 궁궐을 탐독한 책으로 궁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체제'란 건축 행위에 전제된 계획 같은 '건축적 요소'와 궁궐의 실제 운영 방식 · 역사적 변화 같은 '건축 외적인 요소' 모두를 일컫는다. 필자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만들었는가'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조선의 제도와 이념이 궁궐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핀다.

또 북경의 자금성이나 교토 어소 자신전의 기타비사시, 베트남의 후에 궁궐 등 동시대 동아시아 궁궐의 고찰을 통해 조선 궁궐의 특징을 규명하고 있다.